

시작과
설렘



시작과 설렘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한 설렘을 줍니다.
2023년에는 행복이라는 선물이 우리 앞에 활짝 펼쳐지길 온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3년 1+2월호
통권 165호

발행일
2023년 2월 10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홍보협력실 042-868-1135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06

KNF Theme.

- 04
신년사
비전 2035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 06
프롤로그
- 08
생각 나누기
병렬 인생을 꿈꾸며
- 12
특별한 만남
한 해의 출발선에서 '행복'을 묻다

12



Mission KNF.

- 16
에너지 리포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는 2023년
- 20
KNF NOW
- 24
KNF 스토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감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 NSA플랜트
- 28
안전 알림이
안전경영 선포식과 안전경영 전략계획
- 32
나눔의 공식
KNF 사회공헌활동
- 34
에코 카툰
KNF가 GREEN 내일

KNF Life.

- 36
계절 따라 여행
담양 눈길 산책
- 40
지금은 뉴노멀 시대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를 넘는
휴머니즘적 선택
- 42
마음의 위로
소통, 너와 나의 연결고리
- 44
문화의 발견
- 46
독자 마당

24



28



36



비전 2035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3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웅크렸다가 멀리 도약하는 토끼’처럼 새해에는 건강과 희망이 넘치고 계획한 일들이 모두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022년도 KNF인상을 수상하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한전의 적자 확대 등 유난히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노력으로 국내 및 UAE 원전에 연료공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안정적인 재무 기반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획득, 국가품질경영상 수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웨스팅하우스사 피복관 수출 등 꾸준한 성과도 이루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들과 회사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최달근 위원장님을 포함한 노동조합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새롭게 도약하고자 비전 2035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깊은 고민으로 수립한 비전 2035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올해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를 실천해 나갑시다.

먼저, 안전관리 강화와 원전 비중 증가에 대비한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재해재난 비상대응시스템 확충, 재난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튼튼한 재난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원자력 연료 수요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공정 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상반기 준공 예정인 제3공장의 착실한 운영 준비와 더불어, 차세대 제조 운영시스템(MES) 통합화 및 스마트팩토리 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둘째,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날 친환경 경제활동이 기업활동에 필수요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사고저항성 핵연료 상용로 연소시험 추진, APR1000 원전에 대한 유럽사업자요건 인증 취득, 혁신형 SMR 핵연료 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폐물의 대용량 고강도 제염기술 상용화 및 부피감용 기술을 확보하여 더욱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미래기술을 선도합니다.

셋째, 적극적 해외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을 이유로 원자력에 대한 수요는 증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회사는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해외 신규원전 사업 공동개발로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방폐물 사업추진과 연료 부품, 장비, 서비스 수출 사업 확장 등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넷째, 국민 체감 경영혁신과 ESG기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작년 신정부 출범 후 공공기관 효율화, 재무 건전성 확보 등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회사도 중장기 전략 방향과 연계한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핵심사업 역량 강화,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ESG 경영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NF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두가 노력합니다.

우리 회사는 창사 이래 부단한 노력으로 굴지의 핵연료 전문회사로 성장해왔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New Global Standard’라는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Global Standard’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의 어려운 환경을 잘 극복하였고,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연료공급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그 저력을 다시 한 번 응집하여, 외적 성장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좋은 조직, 일할 맛나는 회사,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노동조합의 협력이 있어야 이루어나갈 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달근 위원장님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최익수



— 癸卯年 —
새해아침

해마다 맞이하는 새해지만
언제나 설레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나이만 한 살 더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의 깊이가 더 넓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짝 피어나는 우리의 시간을 기대하며
새해에도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한 가지에만 집중하는 직렬의 삶보다 자신이 하고 싶거나 할 수 있는 병렬의 삶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비록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실천해보고 기다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것이며 우리 자신 또한 새 사람임을 잊지 말자.

병렬
인생을

꿈꾸며



글. 나태주(시인)

어느덧 2천 년 하고서도 스물세 해째인 2023년이 되었다. 2천 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흥분하고 들떠서 요란을 떨었던가! 새로운 밀레니엄이니 새 천 년이니 감동에 감동을 담아 감격했었는데 그로부터 까마득히 멀리 23년이나 떠났다는 것이다.

올해는 또 토끼해란다. 그것도 검은 토끼해. 이것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굴레요, 허상이요, 개념이다. 어쨌든 좋다. 토끼띠 해.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서 토끼의 약점이나 나쁜 점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토끼의 장점과 덕성을 말하고 싶어 한다.

이 또한 인간의 자기 체면의 한 바람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해 앞에서 토끼처럼 높이 뛰어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또 토끼의 다산과 온순함을 본받아 우리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꿈꾼다. 번영과 화합에 대한 소망이 그렇게 표출된 것이리라.

고요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1년을 계획하자

새해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각오요, 새로운 결심이요, 새로운 마음가짐이다. 그것은 옛날 어른들부터 그래왔다. '인생 사계(人生四計)'란 말이 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원단에 있고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고 한 집안의 계획은 화목함에 있다'가 바로 그것이다.

이때의 계획이란 서양식으로 말하는 프로그램이나 플랜과 같이 분명하거나 잘게 쪼갠 개념이 아니고 좀 두루뭉수리한 개념이다. 보다 큰 개념이고 삶의 태도나 방향성 같은 것을 표현하는 말이란 것이다. 이러한 인생 사계 앞에서 우리는 좀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자기의 인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1년의 계획은 원단(元旦)에 있다 했다. 원단이란 정확하게는 '설날 아침'인데 길게 잡아서 1월 초순 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그 1월 초순에 우리는 조금쯤 고요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나는 올해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젊은 시절엔 직렬 인생을 생각하기 쉽다. 건전지 두 개가 있다고 그럴 때, 두 개의 건전지를 세로로 연결하여 두 개의 에너지로 하나의 불을 밝히는 것이 직렬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직렬 인생이다. 하지만 나는 직렬 인생보다는 병렬 인생을 권장하고 싶다.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에서도 옛날 어른들의 지혜를 빌려야 한다. 특히 농경시대 농사를 짓던 우리 농부들의 태도를 배워야 한다. 한 해가 시작되고 날이 풀리고 봄이 오면 농부들은 농토에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요즘 농부들처럼 특성화된 작물의 씨앗만 골라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온갖 씨앗을 다 심는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직렬보다는 병렬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만 열중하는

올인의 시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될수록

단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자기가 가진 땅 구석구석 쪼갰다 땅까지 찾아내어 이것저것 자기가 심을 수 있는 씨앗들을 골고루 심는다. 그런 뒤로 그것들을 살피면서 1년을 보낸다. 씨앗을 심는 것도 순서가 있겠지만 수확에도 순서가 있어 때가 되면 이것저것 곡식이며 채소들이 성장하여 수확을 기다린다. 그리하여 농부는 풍요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바로 이것이다. 우리네 인생에 있어서도 직렬보다는 병렬로 사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만 열중하는 올인의 시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시기는 될수록 단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자기가 관심 가지고 손을 뻗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인의 일, 가정의 일, 직장의 일은 물론이고 여력이 있다면 사회의 일에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뒤끝이 좋아진다.

나 스스로가 그러했다. 개인의 일로 시를 썼고 직장의 일로 교사를 했고 가정의 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길렀으며 사회의 일로 지역 사회 문화계에 몸을 담고 감당할 일을 했다. 물론 몸이 고달프고 마음이 졸였고 나날의 삶이 지치고 힘들었다. 나 자신의 받은 시간을 쪼개어 여기저기에 주기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노후의 삶이 쓸쓸하지 않고 좋았다. 62세 초등학교 교직에서 물러나서 문화원장을 8년 역임하고 한국시인협회장을 맡게 된 것도 내가 나의 인생을 직렬 인생이 아닌 병렬 인생으로 유지해온 덕이다. 문단 생활 52년인데 교직 정년 이전 35년 동안에 낸 책의 수보다 교직 정년 이후 15년에 낸 책의 수가 월등 많은 것도 바로 병렬 인생의 덕분이다.

청춘의 시절엔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다. 그래도 그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어야 하고 부족한 돈을 역시 쪼개어 여러 군데 자기 관심 분야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실이 되어 차례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올해로 103세가 되시는 철학자, 김형석 선생은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라 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공통으로 말하길 인생의 정상은 73세라고 말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인생은 짧은 것 같으면서도 길고 긴 것 같으면서도 짧다. 짧은 것 같지만 지루하고 긴 것 같지만 빨리 사라진다는 말이다.

이러한 인생을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앞에서 밝힌 인생 사계 가운데 일생의 계획은 부지런함에 있다는 대목에 유념해야 한다. 부지런함은 모든 인생의 근본이요, 모든 성공의 최대 인자이다. 무슨 일이든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는가. '큰 부자는 하늘이 내지만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이 낸다.'

젊은 시절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혹사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몸이든 마음이든 아낄 필요가 있다. 일이 좀 잘 안 풀려도 조금은 여유를 갖고 기다리고 참고 노력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젊은 시절엔 알 수 없는 것이 문제이고 늙어서는 할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반대로 젊어서 알 수 있고 늙어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정말로 그래서 젊은 시절 자기를 아끼자는 것이다. 음식이나 고기도 젊어서 즐겨 먹는 것이지만 늙어서는 잘 먹을 수가 없는 것이고 술도 젊어서 혈기로 마시고 즐기는 것이지만 늙어서는 먹으려 해도 먹지 못하는 것이다. 고기든 음식이든 먹고 싶을 때 먹고 술도 마시고 싶을 때 마셔라. 하지만 음식이나 고기에 붙잡히지 말아야 하고 술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생은 매일이 새날이다

'인생 삼여(三餘)와 '독서 삼여(三餘)란 말씀도 아시는가? 인생에 세 가지 여유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인생 삼여이다. 물론 농경사회요, 옛날 유교 사회이니 오늘날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지만 그래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다.

먼저 인생 삼여란 이러하다. 하루 중 여유 있는 시간은 저녁 시간이고, 1년 중 여유 있는 시간은 겨울철이고, 일생 중 여유 있는 시간은 노년이라는 것이다. 그만큼 노년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서둘러 늙을 필요는 없어도 늙어서의 일을 미리 대비하면서 살 필요는 있다고 본다.

참고삼아 독서 삼여를 말해보면 이러하다. 책 읽기 좋은 세 가지 여유 시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 역시 농경시대의 이야기이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하면 좋겠다. 하루 중 책 읽기 좋은 시간은 저녁 시간이고, 날씨가운데 책 읽기 좋은 시간은 비 오는 날이고, 1년 중 책 읽기 좋은 시간은 겨울철이라는 것이다.

허깨비로든 진짜로든 새해가 왔다. 새해가 되어서 벌써 며칠이 지났다. 아,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나? 소스라친 마음으로 달력을 올려다본다. 올해도 열심히 살자. 비록 계획한 바대로 모든 일을 이루지는 못한다 해도 결심하지 않은 것보다는 결심해보는 것이 좋고 실천해보지 않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실천해보는 것이 좋고 기다려보지 않는 것보다는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

토끼해라 하지 않는가? 토끼처럼은 팔딱팔딱 높이높이 뛰거나 달리지 못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높이뛰기를 바라고 민첩해지기를 꿈꾸어보자. 그렇다면 그러지 않은 것보다 훨씬 좋지 않겠는가. 가장 나쁜 것은 포기다. 시작부터 포기하고 맥이 빠지면 뒤편으로 가서는 아예 흔적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다. 인생은 날마다 새날이고 나는 또 그 새날인 인생에서 새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자. 



한 해의 출발선에서 '행복'을 묻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신년 인사도 그러하듯 '복', '행복'을 기원하는 인간의 행위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행복'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이토록 끊임없이 이를 갈망하는 것일까? 신년을 맞아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를 만나 새로운 시선으로 '행복'을 통찰해보자.

글. 한경희 사진. 김인규



박문호 박사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 A&M대학교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30년간 재직했고, 자연 과학 세계관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 자연 과학서를 섭렵하며 삶의 근원을 캐는 공부에 매진했다. 저서로는 <뇌, 생각의 출현>,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박문호 박사의 빅히스토리 공부>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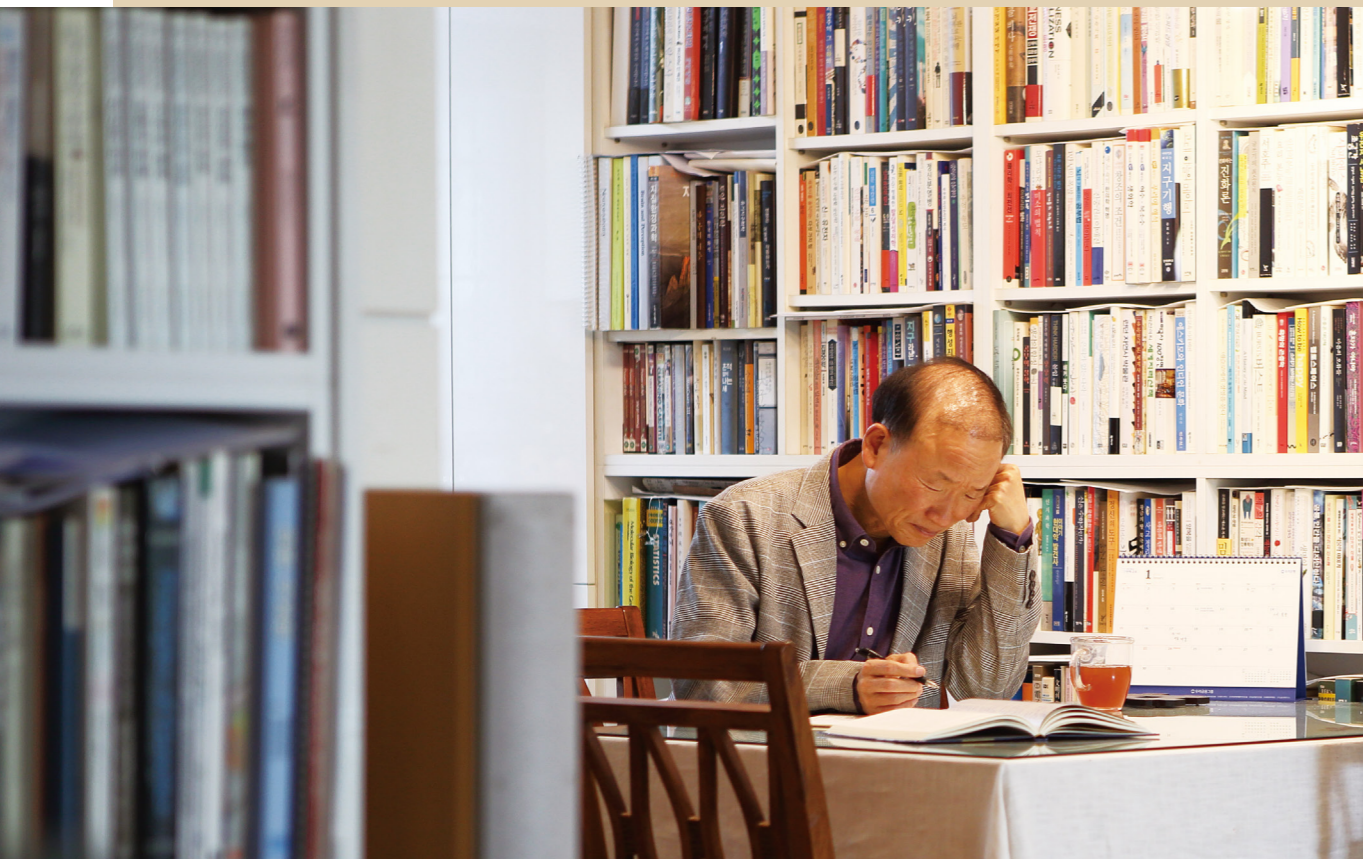
Q. 인간의 행복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유한한 삶을 사는 인간에게 '행복'은 생리적으로 '별 탈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더 나아가 인간에게는 생존을 위한 가치들이 내면화된 '감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그런 감정 중 하나가 바로 '행복'이라는 개념입니다. 행복 추구는 사회적 자아에서 비롯돼요. 인간의 자아 중 1차적 셀프 즉 신체적 자아는 소나 말 같은 동물에게도 있죠. 태어날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통해 신체적 자아를 인식하죠. 그리고 사춘기가 올 때쯤 사회가 자신을 침투해오면서 사회적 자아가 출현합니다. 이때 우상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는 '종교'라는 도그마가 심어져 신앙심이 깊어지기도 하죠. 또 누구는 밤하늘의 별에 심취해 아인슈타인을 꿈꾸기도 하구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하는 질문도 대부분 바로 이 사회적 자아의 관점에서 하는 질문입니다. 어릴 적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조난돼 혼자 지낸 사람에게 질투심, 시기심, 용맹심 같은 감정이 있을까요? 이러한 감정들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시대에 따라, 연령에 따라, 조건에 따라 상대적 변화가 큰 행복의 의미는 모호할 수밖에 없죠.

Q. 모호한 개념의 행복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구체성에서 추상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령 초등학교 글쓰기 주제로 '우정이란 무엇인가'보다는 '내가 우리 교실에서 만났던





첫 번째 단짝 친구 누구와 같이 구체적인 느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기억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기억을 확장하는 것이 모호한 '행복'의 개념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앞서 신체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엔 서사적 자아, 즉 나레이티브 셀프(narrative self)가 생깁니다. 특별한 외부의 자극이 없이도 우리의 뇌 안에서는 끊임없이 문제와 해답을 찾는 과정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죠. 그 해답은 자신의 과거 기억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그 자전적 기억을 매 순간 불러와서 그게 연쇄적으로 이어질 때 그 주체가 바로 셀프가 됩니다. 그 자전적 셀프가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때로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것에 스스로 추론을 하고 답을 찾게 되는데, 그때 그 연쇄는 멈추죠. 그래

서 다양한 기억, 경험, 에피소드는 풍부한 서사적 자아를 만듭니다. 그렇게 쌓인 기억의 집합이 신념을 형성하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되죠. 우리는 이런 풍부한 기억의 집합을 만들기 위해 공부 필요하고 과학적 사고를 해야 하죠.

Q. 풍부한 기억과 과학적 사고가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가설적 추론과 증거가 거듭되며 쌓인 기억의 집합이 생각의 오류를 줄입니다. '시공간이 제약된 조건 속에서 한정된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로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효율성'이었습니다. 이걸 공학에서는 최적화의 문제로 보는데 기초주의자들은 수학, 논리학, 물리학에서 법칙을 만들고, 자연과학에서는 기호, 방정식, 문법, 알고리즘 등을 만들었어요. 연결주의자들은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이어져요. 연결주의의 대표적인 예가 영화 <아바타2>에 나와 있죠. 영화 속에서는 숲 생태계가 서로 연결되어 교감합니다. 브레인 속 하나의 뉴런이 수백 개의 뉴런과 연결돼 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연결망인 것처럼 인간도 사회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상호작용을 연결주의로 풀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AI 혁명입니다. 세계를 확률로 보는 베이즈주의자들도 있어요. 이들은 생명의 진화를 확률을 통해 계산합니다. 딥러닝이 작동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이 바로 베이즈주의예요. 또 자연어처리 언어 모델인 GPT는 인간의 뇌 수준으로 개발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AI가 대체할 직업은 이미 많죠. 작업의 질 역시 인간보다 월등히 높고요.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복의 개념을 대입해보세요. 엉뚱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사고를 한정된 틀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야 하죠.

Q.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사고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오랜 기간 우주적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지구와 인간의 개념을 전혀 다른 시선에서도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 됐건 우리는 인간, 지구라는 범주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다른 행성에서 다른 생

명체가 진화하면 어떤 형태의 생물이 될까 하는 궁금증도 있고요.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죠. 년센스 같지만, 우리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은 가치라는 것을 신경 시스템에 내면화해서 우리의 욕망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생각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덜컹거릴 수 있지만, 가보지 않은 그 길을 한발 한발 디뎠다 왔기에 상대성이론이 나왔고, 달까지 가게 된 것이죠. 앞서 얘기한 베이즈주의는 현재로서 인간의 뇌의 작용을 잘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베이즈주의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신념은 각자의 이전 기억(과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기억은 하나의 기억이 아닌 분포함수를 가지며, 현재의 세상을 보는 감각의 값과 합성곱(convolution)을 통해 사후 확률, 즉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미래의 행복을 바라지요? 하지만 보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후확률은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갑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즉 현재의 기억을 풍성히 하라는 거죠. 과거의 기억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현재'에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점점 과거의 기억이 양질로 풍성해지고 결국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모두 좋은 기억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KNF}

과거의 기억은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현재'에 좋은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면

점점 과거의 기억이 양질로 풍성해지고

결국 우리의 미래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올 한 해 모두 좋은 기억들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가시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도전이 기대되는 2023년

전력수급 운영 계획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올해 확정됐다. 지난해는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이 교체됐던 해다. 정권 교체기에서 에너지 수급의 구체적인 목표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올해 초부터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확실한 보급 목표가 나왔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업계가 나아가야 할 때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 원자력에는 탈원전에 대한 반성을, 신재생에너지에는 복마전에 대한 질책이 있었다. 이제 반성과 질책을 넘어 모든 에너지업계가 에너지 안보와 비용 효율화, 산업 육성이라는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글: 이원희(에너지경제 기자)

▶올해 가동 혹은 예정인 신규 대규모 발전소 목록

구분	발전소명	설비용량(MW)	준공일 혹은 예정일
원자력	신한울 원전 1호기	1400	22.12
	신한울 원전 2호기	1400	23.09
석탄	강릉안인화력 1호기	1040	22.10
	강릉안인화력 2호기	1040	22.03
	삼척화력 1호기	1050	23.10
신재생 에너지	태안안면 태양광	306	23.06
	해장만 수상태양광	98	23.04
	청송면봉산 풍력	79	23.06

자료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발전소 건설사업 추진현황

지난 1월 6일에 열린 올해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달라진 원자력계의 분위기를 볼 수 있었다. 여당과 야당 의원들도 함께 참석하면서 에너지 관련 행사에서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됐다. 행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전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업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는 상반된 기류를 맞고 있다.

10차 전기본 확정, 원자력엔 반성, 신재생에너지엔 질책

정부의 에너지수급 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10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로 지난 1월 12일 확정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온실감축목표(NDC)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목표다. 10차 전기본에서 2030년까지 원자력은 전체 발전량의 32.4%, 신재생에너지는 21.6%를 달성하기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 NDC에 따라 2030년 발전량 비중 목표를 원전 23.9%, 신재생 30.2%로 정했다. 9차 전기본과 비교하면 10차 전기본에서는 원전의 경우 8.5%포인트가 늘고 신재생에너지는 8.6%포인트 줄었다. 원전이 늘어난 양만큼 신재생에너지가 그대로 줄어든 셈이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구체적인 에너지수급 목표가 정해졌다. 신한울 1, 2호기 원전도 전력시장에 새로 들어온다. 지난해는 원자력에는 탈원전에 대한 반성과 재생에너지에는 복마전에 대한 질책이 있던 한 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자력에 대해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했다면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무총리실 조사결과 나타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일부 위법 사례에 대해선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돼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이외에도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대수익과 수소연료전지사업의 친환경성 등에서 논란이 됐다.

올해 에너지 수급 정책 현실화 위한 과제들 넘쳐

올해는 이같은 반성과 질책을 기반으로 에너지 수급 정책을 현실화해야 한다. 원자력에게는 앞으로 '꽃길'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 않다. 원전 수출 과제는 만만치 않다. 원전업계에서는 정부가 그린텍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했지만 그린텍소노미로 포함하는 세부 조건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 중 하나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을 2050년까지 마련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대책이 나와야 제대로 그린텍소노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린텍소노미로 제대로 인정받아야 금융 투자를 더욱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회에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한울 3, 4호기를 빠르게 준공하는 것도 전력 수급의 과제다. 신한울 3, 4호기는 내년에 착공이 예정됐다. 앞으로 수명이 끝나는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속 운전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명 연장 허가를 받아도 허가 조건을 맞추는 기간만큼 수명 연장 기간이 줄어든다고 알려졌다. 원전업계는 수명 허가 조건을 맞춘 이후에 수명 연장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는 대규모 신규 석탄발전소도 동해안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들과 동해안에 들어설 신규 원전을 연결한 송전망을 동해안에 구축하는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같은 원전업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국회 협조가 필수다. 하지만 여소아대 국면에서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원자력 신년 행사에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해 협조를 약속한 건 아니었다. 위원회마다 생각은 또 다른 것이다. 원자력 업계의 과제를 달성하려면 거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협조를 이끌기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보다 달성 목표가 축소돼 정책 부담을 덜어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21.6%를 달성하는 것도 엄청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전체의 7.5%로 앞으로 2030년까지 2.8배 이상 늘어야 한다. 태양광 비리 단속 결과 발표 이후 태양광 사업에 지나친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 보급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태양광 사업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와

에너지업계에 놓인 과제들은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국민이 공감해야 국회도 따라온다.

원전은 계속 운영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같은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풍력업계는 '풍력발전 촉진법'에 주목하고 있다. 풍력발전 촉진법은 해상풍력 사업의 허가 절차를 단순화하려는 법안이다. 하지만 어민들 반대 등의 이유로 아직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과 풍력 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올해는 청정수소발전의무화제도(CHPS)의 도입이 예정된 해다. 당

에너지정책은

국민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

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위해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장 수소발전은 화석연료를 통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CHPS가 청정한 연료를 통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로 발전하도록 수소발전산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국민적인 공감대 이끌 수 있어야

에너지업계에 놓인 과제들은 결국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해결할 수 있어 보인다. 국민이 공감해야 국회도 따라온다. 원전은 계속 운영을 해도 안전하다는 걸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고준위 폐

기물 처리장 구축 계획은 부지를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지어지는 송전망은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설득해 내야 한다.

태양광 사업은 건전한 보급을 위해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 국민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전기요금의 일부인 기후환경 요금을 통해 낸다. 기후환경 요금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해상풍력 사업은 어떻게 어민들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 주민참여사업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일부에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가 대안으로 꼽힌다.

에너지산업은 이제 정부와 공기업들이 알아서 하던 영역이 아니다. 국민의 지지 없이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연료를 화석연료에서 친환경연료로 전환하지 않으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도 에너지전환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다.

에너지정책은 국민이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 에너지업계 종사자들이 이를 위해 모두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우리 회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01



무역의 날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5일 제59회 무역의 날을 맞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를 동시에 수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업으로, 2009년 우리나라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함에 따라 2017년부터 원자력연료를 수출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원자력연료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원자력연료의 핵심부품과 부품제조 장비, 사용 후 연료 성능검사 장비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수출하여 지난해 기준 2.4억불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아울러 우리 회사의 윤상준(UAE사업관리부) 선임연구원 원자력연료의 해외 수출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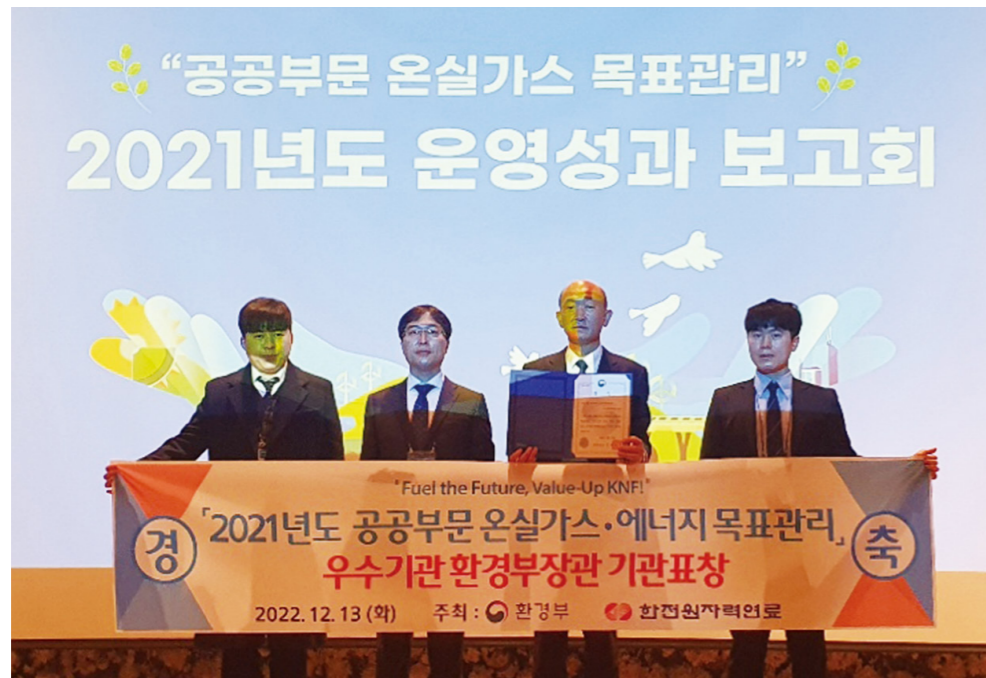
02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 획득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7일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4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을 위해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우리 회사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능력·태도를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여 직무능력중심의 인재를 채용하고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최익수 사장은 "앞으로도 차별적 요소를 배제한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으로 우리 기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채용문화 확산에 더욱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03



2021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우리 회사는 지난해 12월 13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
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2021년도 운영성과 보고대회’에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감축 우수기관으로 환경부장
관상을 수상했다. 계획적 중앙집중형 냉·난방시스템 확대,
냉·난방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
축 및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했으며, 재생에너지(지열, 태
양열 등)를 적극 활용하고 공조 필터 교체 및 열손실 개선,
공조환기 재활용 비율 향상, 노후 LED 고효율 설비 교체
등 다각적 설비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률을 높였다.

또한 복장 간소화 및 개별 냉·난방기 사용 근절, 환경친화
적 자동차 도입강화 등 ‘함께해요, 탄소 다이어트’ 운동을
실시하고 ‘노사합동 ESG 경영’ 중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에
너지 절약을 전사적으로 실천해왔다. 최익수 사장은 “앞
으로도 탄소중립의 선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속적 공정
개선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노력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민의 건강과 개
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4



설 명절 맞이 노사합동 이웃사랑 나눔

우리 회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7일, 노사합동으로 대전시 유성구장애인종합복
지관 등 4개 기관을 찾아 2,3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및 과일을 전달했다. 최
익수 사장은 “경기침체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따뜻
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내 봉사단인 에너지
피아봉사단과 유관기관 협력조직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2022년 11
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
사활동을 매년 빠짐없이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공감의 행복을 아는 사람들 NSA플랜트



소통이 만들어가는 친밀감

NSA플랜트는 늘어나는 핵연료 피복관 수요를 충족시키고 TSA 플랜트 설비 고장 시 Back-Up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신의 핵연료 피복관 제조시설이다.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부 황해수 부장을 포함한 김강민 과장, 김건화 조장, 문재혁 조장은 '좋은 조직'이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몸소 경험하며 함께 일하고 있다.

2016년 NSA플랜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대전으로 옮겨 2년간 근무 후 지난해 초 부장으로 다시 이곳 논산에 돌아온 황해수 부장은 논산공장 설립 후 주변에 편의시설 하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해본 터라 부서원들이 이곳에 외떨어져 혹여 소외감을 느끼진 않을까 염려하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직원들 역시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MZ세대 부장과 함께 스스럼 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업무는 물론 생활 속에서의 애로사항을 함께 개선해 나가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다. 이런 적극적인 소통이 서로에게 남다른 친밀감을 만들고 있다고 김강민 과장은 말한다.

"MZ세대 부장님이신만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직원들 하나하나 배려해주시죠. 서로가 친근해지니 더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김강민 과장의 말에 김건화 조장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젊은 부장님 덕분에 분위기가 더 밝아졌어요. 직원들이 서로 가깝게 소통하며 서로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니 고충도 많이 해결되었죠."

좋은 조직이란 무엇일까? 기량이 뛰어난 구성원의 집합체? 최고의 업무시스템을 갖춘 조직? 혹은 훌륭한 경영 철학을 가진 기업?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조직'을 만드는 것일까? 우리 회사 NSA플랜트의 모습에서 '좋은 조직'의 모범적 본보기를 소개해본다.

글. 한경희 사진. 김인규



마음을 기울이면 일어나는 변화들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변화는 다양한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근에 식사할 곳이 마땅치 않아 직원들은 식사 때마다 곤욕이던 차에 협업식당을 지정하게 되면서 안심하고 매 끼니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것도 달라진 변화 중 하나다. 식당까지의 거리도 만만치 않아 여름에는 더워서 다녀오기 힘들고,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드니 식사시간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고된 훈련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문재혁 조장도 매일 점심 식사 해결이 힘들었던 그때를 상기했다.

"NSA플랜트 인근에는 두 군데의 식당이 있었어요. 한 곳은 뷔페식으로 나왔고, 다른 한 곳은 백반식으로 나왔죠. 골라 먹을 수 있으니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뷔페식은 위생이 좋지 못했고, 백반식은 매주 메뉴가 반복되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탈이 났다. 여름 어느 날, 뷔페식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한 몇몇 직원이 단체로 복통을 호소하는 상황이 발생



황해수 부장 김강민 과장 김건화 조장 문재혁 조장



하고 단체로 장염에 걸리면서 며칠간 크게 고생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던 차에 올해 4월, 걸어서 5분 거리에 작은 식당과 카페 하나가 자리 잡았다. 직원들이 이용해본 결과 음식도 정갈하고, 맛도 좋을 뿐 아니라 무척 친절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게다가 식당 사장의 숨은 선행이 알려지면서 식당에 대한 호감도는 더 크게 올라갔다. 식당 사장은 대학에서 한의학을 강의하면서 틈틈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있었고, 직원들은 그의 선한 영향력에 마음까지 푸근해졌다고 한다. 김건화 조장도 요즘 식사 시간이 즐겁기만 하다.

“무엇보다 식단이 매일 바뀌니 좋습니다. 영양가 높은 식단으로 집밥처럼 만들어주시죠. 조미료는 최대한 적게 넣고 싱싱한 재료로 건강한 한 끼를 차려주세요. 이렇게 집밥 같은 식사로 아침·저녁을 먹을 수 있어 직원들 사이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전에는 사차제 직원들이 아침과 저녁 식사를 거르거나 편의점에서 자비

로 사 먹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장님이 건강하셔서 식당 문 닫지 않고 오래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은 직원들을 자식처럼 챙기고, 직원들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식당을 이용하니 이심전심, 이전의 고민거리였던 식사 문제는 이렇게 훈훈히 해결된 셈이다.

‘함께’의 힘을 발휘하는 NSA의 행복 파워

두 달에 한 번 교대시간에 열리는 ‘간식데이’도 NSA플랜트에서 주목할 만한 소통의 장이다. 황해수 부장은 가장 많은 직원이 함께 모이는 교대시간에 서로 잠시 얼굴이라도 마주하며 이야기 나눌 기회를 만들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왕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고자 피자 등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두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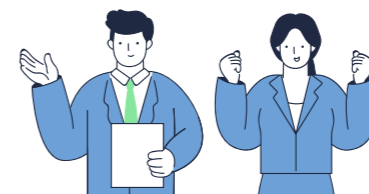
직원들은 현장의 개선사항은 물론이고 현장 사무실, 체력단련실

등에 필요한 물품이나 기구 등이 있으면 요청을 한다. 그때그때 요청이 있을 때마다 최대한 반영되니 달라지는 변화에 서로의 소통이 즐겁다.

“덕분에 체력단련실에 운동기구가 많이 늘었고 탁구대 등도 설치되어 직원들이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실과 휴게실에도 요청한 물품들이 잘 마련되어 능률이 오르네요.”

김강민 과장의 말처럼 서로 소통이 잘 되다 보니 현장의 부족한 점도 빠르게 개선되고 작업자들의 작업 능률도 오르면서 지난 한 해 NSA는 무사고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또한, 수출량이 증가함으로써 올 한해 NSA플랜트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기회를 얻은 것도 전 직원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로 황해수 부장은 고맙게 생각한다.

“아직까지는 NSA가 우리 회사의 변방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2023년에는 한전원자력연료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은 수출의 성과와 함께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신입사원들의 정착을 최우선으로 돕고 기존 사원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국산 원자력연료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사고·무재해로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는 NSA플랜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KNF}



mini interview



어울림밥상 박노민 대표

올해 4월에 식당을 오픈했는데 처음에는 국수 가게였어요. 하루는 NSA플랜트 직원들이 와서 식사하며 매끼 마음 편히 식사를 해결할 만한 곳이 없다고 하길래 저희 식당에 와서 편히 식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메뉴도 백반으로 바꾸며 협업식당이 되었지요. NSA플랜트 직원들이 제 아들 또래라 식사하는 직원들을 보면 자식 같아요. 서로 가족 대하듯 허물없이 인사하고요. 식구 먹을 반찬 준비하듯 꾸미지 않고 소박하게 준비해요. 직접 키운 채소도 활용하고요. 호칭도 ‘사장님’이 아닌 ‘이모님’이라 부르라고 했죠. 가족처럼 누가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지 알아서 챙기고 그러려고요. 식사 후 ‘맛있다, 대박이다’라고 얘기해주면 더 잘해주고 싶네요. 먹고 싶은 것 얘기하라고 해도 ‘이모님 밀지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를 걱정해주요. 먹고 싶은 것 있으면 언제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삼시세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이잖아요.



안전경영 선포식과 안전경영 전략계획

작년 12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우리 회사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경영 선포식과 안전관리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예방우선, 현장중심을 목표로 새해에는 보다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것을 다짐했다.



안전경영 선포식

우리 회사는 지난해 27일과 28일 양일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및 안전관리 핵심인력에 대한 역량강화 세미나를 시행하였다. '예방우선', '현장중심'의 안전경영 실천을 위해 예방적 직원 건강관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로 안전감시능력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 체험형 안전교육장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 및 구체적인 안전경영 실천의지를 선포하였다.



안전경영 전략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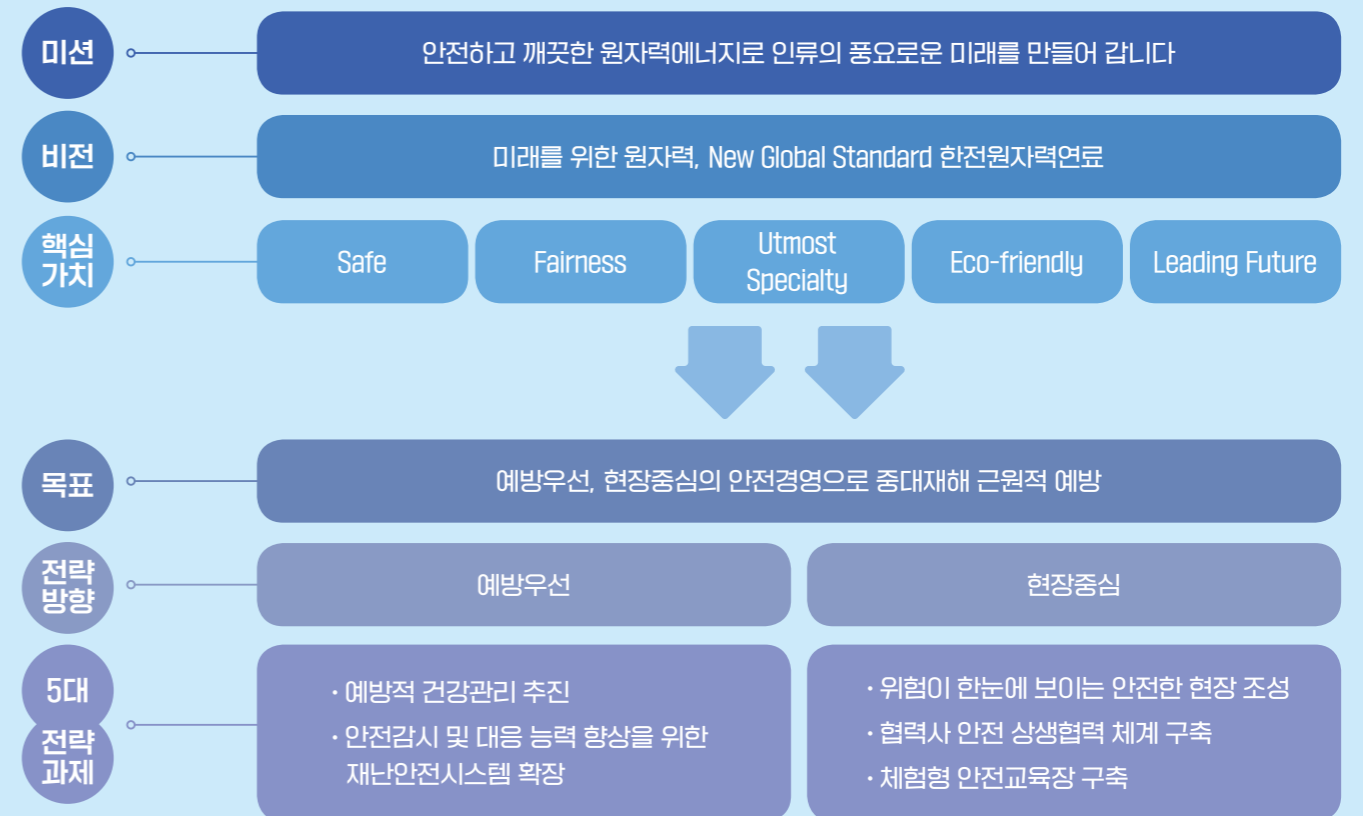
안전경영 전략계획 목적

현장중심의 안전경영, 예방적 안전·보건 관리를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사고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및 사업 연속성 확보

정책 및 규제동향

- 법령 및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21. 1)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22. 1)
- 신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22. 5)
 - 02.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 11.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 49.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 67.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안전경영 5대 전략과제



예방적 건강관리 추진

01

○ 배경 및 목적

- 현재 건강검진 결과 유소견자 및 요관찰자 지속증가로 건강관리의 한계 발생
 - 유소견 및 요관찰자 : 35.3%^{11(285/802명)} → 42%^{21(475/1132명)}
- 코로나19 대응 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임직원 건강 및 체력증진 추진으로 질병 요관찰자 발생 예방
- 주요 성인병 집중관리를 통해 질병 요관찰자의 유소견으로의 진행을 억제

○ 주요활동

- 중장기 임직원 건강 및 체력증진 계획 수립 및 추진
 - 식단: 저염 구내식당, 저탄수화물, 저지방 식단 도입 및 개인별 체성분 분석 및 식단 제안
 - 운동: 회사 둘레길 걷기, 사내 헬스장 트레이너 배치, 요가 및 필라테스 프로그램 추진
 - 기타: 다이어트 챌린지, 금연 프로그램 등
-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 추진

안전감시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시스템 확장

02

○ 배경 및 목적

- 신정부의 국정과제(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기후변화에 따른 복잡·대형화되는 재난 대비 맞춤형 대응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핵물질가공시설 및 튜브플랜트의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 관제 시스템 개선 및 확충

○ 주요활동

- 핵연료3동 비상대응설비 및 종합상황실 구축
- 24시간 재난 감시체계 구축
-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 개발
- 지능형 재난 관제 시스템 도입
- 튜브플랜트 화재감시 시스템 및 가스계 소화설비 등 종합개선

○ 배경 및 목적

- 협착 및 전도 등 단순한 물리적 유해·위험요소 및 작업자 휴먼에러에 의한 산업재해 및 동종재해 지속 발생
 - 재해자 17명(12년~22년) 중 12명(약 70%)이 전도, 균형상실 및 협착
 - 지르코늄 분진 발화, 유지보수 작업 중 협착 및 전도 등 반복 발생
- '보이는 안전'을 작업 현장에 적용하여 근로자의 위험인지능력 향상 및 의식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 주요활동

위험정보 시각화 및 표준화



충돌위험 시각화

낙하위험 시각화

배관 종류별 색채기준

위험정보 제공 다각화

위험이 한눈에 보이는 안전한 현장 조성

03

안전정보 접근성 향상 및 안전캠페인 추진



사고사례 애니메이션

안전정보 조회 시스템

아차사고 신고제

안전의식 개선활동

협력사 안전 상생 협력체계 구축

04

○ 배경 및 목적

- 협력업체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빈도 증가(5건²¹ → 9건²², 80%↑)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급 및 발주공사 안전사고 발생 시 발주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대상 종사자의 범위에 협력업체/공사 근로자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 발주공사 시 안전보건대상 작성 강화 등
- 3공장 신규가동에 따른 외부업체 도급 및 발주공사 작업증가 등 사내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상생 협력체계 구축

○ 주요활동

- 협력업체 간담회 실시 및 안전경진대회(위험성평가 및 공정개선 우수사례 등)
- 협력업체 안전교육 지원 강화 및 TBM 도입
- 상주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인증 추진

○ 배경 및 목적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의식함양 중요성 대두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의 준수 의무 강화
- 타기관 자체 안전교육장 구축을 위한 적극적 투자(*한수원 300억 규모 투자)
- 현장 맞춤형 체험교육으로 효과증대 및 일용직 근로자 위험인지능력 향상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실효성 보완 및 현장중심 체험형 교육 활성화

○ 주요활동

- 체험형 안전교육장 구축
 - VR 교육장비(콘텐츠 포함), 시청각 교육장비, 안전모 충격테스트 장비 등
- 안전교육장 운영기준 수립 및 작업특성별 안전교육 교안 개발
 - 직무교육 연계 및 외부작업자 출입/작업 전 안전교육 운영방안 마련 등



KNF 사회공헌활동

우리 회사는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우리의 활동을 정리해보며 새해에는 더욱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져 모두가 따스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해본다.



지역사회복지시설 방문, 설 명절 선물 전달

2022년 1월 25일

설 명절을 앞두고 노사합동으로 대전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에 온누리상품권 및 과일을 전달했다.



1사 1묘역 가꾸기 봉사활동 실천

2022년 5월 2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소재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랑의 헌혈 운동으로 생명나눔 동참

2022년 8월 25일

대전 덕진동 본사 및 관평동 TSA플랜트에서 'KNF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 소중한 생명의 나눔에 동참했다.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실천

2022년 8월 26일

대전 유성구 대동 소재의 '해맑음센터'를 방문하여 수해피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이웃사랑을 위한 활동을 실천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장터 'Ready-Gachi Flex' 참여

2022년 9월 24~25일

엑스포 한빛탑 물빛광장에서 운영하는 대전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과 대전시민 대상 착한소비 및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판매전인 '2022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Ready-Gachi Flex'에 참여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획득

2022년 11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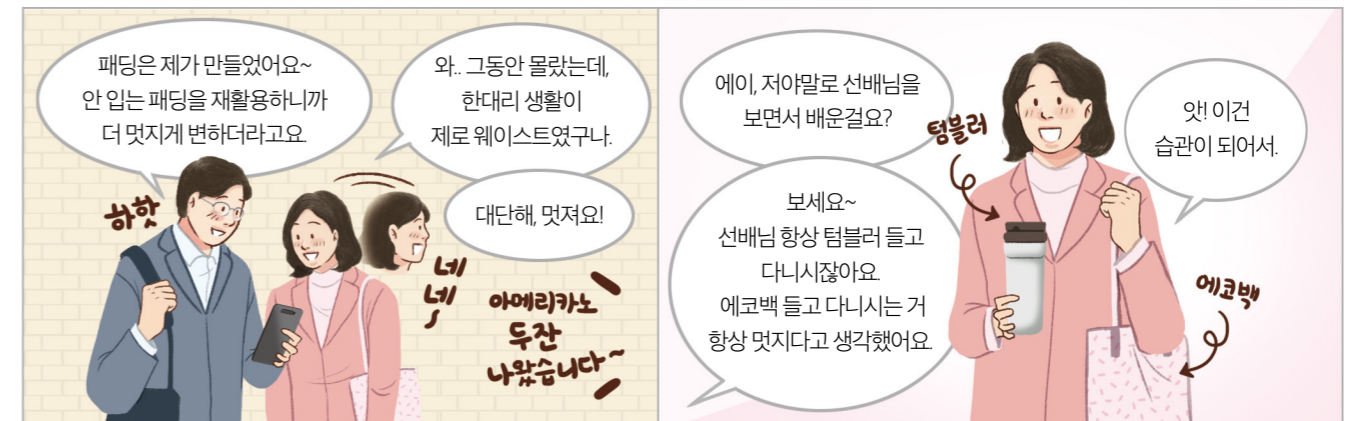
지역농촌 및 전통시장 농산물 구매, 취약계층 및 지역아동 후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등급 획득 및 4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되었다.



KNF가 GREEN 내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환경을 새로 고침한다면 어떨까?
탄소 제로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가능한 다양한 방법들을 소개한다.

글·그림. 버리



KNF life.
+
계절 따라 여행

담양

눈길 산책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지우개가 아닐까.
온 세상을 새하얗게 덮어 버림으로써 지워버리는 지우개 말이다.
그래서 눈은 마음에 위안을 주고, 여행자에게는 설렘을 선사한다.
또 눈은 잊었던 아이의 감성을 일깨우기도 한다.
아무 걱정 없던 그 시절, 눈이 내리면 왜 그리 좋아했는지.
소복한 눈 위에 발자국을 찍으러 길을 나선다.
별이 잘 드는 전남 담양으로.

글·사진. 임운석(여행작가)





눈내린 죽녹원, 좀처럼 볼 수 없는 풍경에 사진을 담고 있는 여행자



새하얀 눈에 뒤덮힌 소쇄원 광풍각

생명력 넘치는 대나무의 고향, 담양

담양 읍내에서 대나무는 가장 흔한 나무다. 대나무 조형물들도 곳곳에 여럿 있다. 버스정류장, 가로등, 심지어 간판도 대나무를 이미지화했다. 죽순은 하루에 최대 1m씩 자랄 만큼 왕성하게 성장해 약 25일 동안 키를 키운 뒤 몸통이 굽어진다. 이런 강한 생명력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월남전 고엽제 살포에도 대나무는 끄떡없이 살아남았다. 대나무가 무성한 담양은 사철 푸르다. 우리나라에서 죽림 조성에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춘 덕분이다. 담양은 물과 햇볕이 풍부하고 기온까지 온화하다. 그래서 담양에 눈이 내리면 귀한 손님 대접을 받는다. 푸른 댓잎에 소복이 내려앉은 눈은 담양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풍경이기 때문이다. 담양에 함박눈이 내리면 현지인은 물론이고 인근 도시에서도 그 풍경을 보기 위해 달려온다. 담양에 눈이 내리면 꼭 찾아야 할 곳이 죽녹원이다. 푸른 대나무와 어우러진 설경이야말로 겨울 풍경의 완성체라 하겠다. 키 큰 대나무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90도 인사를 하듯 휘었다. 눈이 수북하게 쌓인 곳은 휘핑크림을 잔뜩 올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는 듯하고, 대나무는 초록색 빨대를 꽂아놓은 것 같다. 이처럼 죽녹원의 설경은 눈으로 맛을 보는데 그 맛이 아주 시원달콤하다.



관방천의 설경

죽녹원에는 2.4km의 산책로가 8개 테마로 나뉜다. 운수대통길, 사랑이 변치 않는 길, 추억의 셋길, 철학자의 길, 사색의 길, 선비의 길, 죽마고우 길 등 이름만으로도 여유가 느껴진다. 길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테마 길과 연결된다. 기분에 따라 발길 닿는 대로 걸어볼 일이다. 전망대, 쉼터, 정자 등 다양한 조형물을 비롯해 영화나 CF 촬영지를 확인하며 걷는 것도 재밌다. 죽녹원과 맞닿은 시가문화촌은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의 정자 문화를 살펴볼 수 있도록 꾸었다.

걷기 좋은 눈길, 담양 오방길

담양에는 걷기 좋은 '담양 오방길'이 있다. 그 중에서 '수목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전국 10대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로 선정됐다. 길은 관방제림부터 메타프로방스까지 이어진다. 관방제림은 관방천을 따라 2km에 이르는 독길이다. 1648년 조선 인조 때 수해를 막기 위해 이곳에 제방을 쌓고 1854년에 나무를 심었다. 그때 심은 푸조나무, 느티나무, 팽나무가 수백 년 동안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그 중 보호수로 지정된 177그루의 노거수는 푸근한 할미 할아버지처럼 너른 품을 자랑하며 여전히 건재하다. 지금은 천연기념물 제366호로 지정돼 보호 중이다. 수종은 대부분 활엽수다. 품이 큰 나무는 5m가 넘는다. 곧은 대나무가 강직함을 상징한다면 사방으로 팔을 휘저으며 제멋대로 자란 느티나무는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에 눈이 내리자 긴 눈꽃 터널이 완성되었다.

관방제림 노거수에 눈이 내리면 설악산 눈꽃이 부럽지 않은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밤 내린 눈이 가지마다 내려앉아 눈꽃 터널을 이루었다. 뾰드득뾰드득 눈길을 걷다 보면 바람에 흔들려 떨어지는 눈을 맞기도 한다. 빛에 반사된 눈이 영롱한 보석처럼 반짝인다. 아마도 하늘에서 흩뿌리는 다이아몬드가 아닐까 하고 상상해본다. 관방제림 끝자락에 닿으면 신세계가 이어진다. 미국적인 메타세쿼이아 길이다. 키를 가늠할 수 없는 나무가 열병식을 하듯 늘어서 있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나뭇가지가 맞닿아 터널을 이룬다. 이 특별한 길을 오로지 사람만 걸을 수 있더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 길은 1972년부터 5년간 국도 24호선을 따라 담양군청에서 금성면까지 5km 구간에 1,300그루를 심어 조성했다. 이후 8.5km까지 확장한 결과 국도변 양쪽에 지름만 20m에 달하는 아름드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이 만들어진 것이다. 꿈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불리는 이 구간은 자동차로 드라이브만 해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 중에서 일부 구간이 한때 고속도로 개발 계획으로 인해 사라질 위험에 처했었다. 다행스럽게도 군민들의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 결과 한국인이 꼭 한번은 걷고 싶은 길로,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거리 숲 부문 대상,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오방길의 마지막 구간은 패션, 공방, 카페, 펜션 등이 자리한 메타프로방스이다. 프랑스의 시골 도시인 프로방스를 컨셉트로 만들어져 이국적인 건축물과 다양한 문화체험이 가능하다. 젊은 연인들이 즐겨 찾아 일찌감치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다.

설경에서 맛보는 여유, 소쇄원

'여보시오 나는 혼탁한 세상이 싫소. 그러니 깊은 산에서 유유자적하며 살리다.' 담양에 터잡은 이름 모를 선비가 할 법한 말이다. 그 선비는 세상에 맞서기보다 자연에 귀의하여 살기를 바랐을 것이다. 작은 바람에도 대나무가 '우수수' 울어대는 담양 소쇄원이 딱 그런 곳이다. 소쇄원은 조선시대 문인인 양산보(1503~1557)가 기묘사화(1519년)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기 위해 지은 별서로 유명하다. 특히 인위적으로 조성한 정원과 달리 인공미를 삼가고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지음으로써 우리나라의 대표적 원림으로 손꼽힌다. 매표소 너머 대숲을 지나면 세상과 단절된 외딴섬과 같은 광풍각을 마주한다. 광풍각이란 '비 갠 뒤에 해가 뜨며 부는 청량한 바람'이라는 뜻으로 손님을 위한 사랑방이다. 중앙에 작은 방이 있고 양쪽에 툇마루가 있다. 반질반질하게 손때가 묻은 나무 기둥과 마루에는 400여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그 뒤로 '비 갠 하늘의 상쾌한 달'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제월당이 살짝 비껴났다. 주인을 위한 공간으로 매우 단출하다. 주인장은 이곳에서 소쇄원의 전경을 두루두루 살피며 감상했을 것이다. 구조에서 집주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모름지기 어지러운 세상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행복을 누리하고자 했을 터다. 밝은 달을 마주하는 제월당에 앉아 맑은 바람이 스쳐 노래하는 광풍각과 눈 덮인 대숲을 바라본다. 붉은색 동백이 화룡점정을 찍듯 고혹적이다. 죽녹원에서처럼 이곳 풍경도 그 맛이 일품이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제자리를 찾는다. [※]

+

- ① **여행 팁** 담양은 별이 좋아 정오가 지나면 눈이 녹기 시작한다. 따라서 오전 일찍 눈길에 나서야 한다.
- ② **내비게이션 정보** 죽녹원(담양군 담양읍 죽녹원로 119), 소쇄원(담양군 가사문학면 소쇄원길 17)
- ③ **문의** 죽녹원(061-380-2680), 소쇄원(061-381-0115), 담양군청 관광정보센터(061-380-2820)

디지털 시대의 딜레마를 넘는 휴머니즘적 선택

이미 우리는 고도화된 디지털 사회로 들어서고 있다.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편리함을 가져다주긴 하지만, 그것은 또한 인간을 소외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이 주는 딜레마를 넘는 휴머니즘적 선택이 중요해진 이유다.

글: 정덕현(문화평론가)



<아이, 로봇>과 트롤리 딜레마

사고로 물에 빠진 자동차에 점점 물이 차오른다. 마침 인공지능 로봇이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는데, 어린 소녀가 아닌 어른을 구한다. 어른은 자신 말고 소녀를 구하라 외치지만 로봇은 말을 듣지 않는다. 이유는 어른이 아이보다 생존확률이 높다고 로봇이 판단해서다. 결국 살아남은 어른은 평생 죄책감을 갖고 살게 된다.

2035년 로봇이 일상화된 시대를 배경으로 한 SF 영화 <아이, 로봇>에 등장하는 이 문제는, 영국의 철학자 필리파 풋과 미국의 철학자 주디스 자비스 톰슨이 고안한 이른바 '트롤리 딜레마' 상황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즉 '브레이크가 고장난 전동차가 철로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한쪽 철로에는 5명의 인부가, 다른 쪽에는 1명의 인부가 있다면 레버를 당겨 선로를 변경할 것인가?'가 그 상황이다.

이것은 한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여러 사람을 구하는 게 옳다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의 관점인 벤담의 공리주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무리 다섯 명을 구한다 해도 존엄한 인격을 가진 한 명의 인간을 희생시키는 건 살인행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살인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의무론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선택의 질문이기도 하다. 이 상황 실험에 대해 대부분은 방향을 바꾸는 걸 선택했다고 한다. 더 많은 인명을 구하는 게 옳다는 윤리적 판단 때문이다.

이 트롤리 딜레마는 그러나 <아이, 로봇> 같은 SF영화에서나 등장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공지능의 자율성에 대한 문제로 이미 현재 어느 정도 실용단계에 들어와 있는 자율주행차 설계만 봐도 이 문제가 등장한다. 즉, 사고가 발생할 수 있게 된 순간, 자율주행차는 더 많은 이들을 구하기 위해 운전자를 희생하는

공리주의적인 선택을 하게 프로그래밍할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 우선적인 선택을 하게 프로그래밍할 것인가 같은 문제가 그것이다. 전자가 옳을 것 같지만, 자동차를 팔거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시대, 방향 레버로서의 휴머니즘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갈수록 편리해져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대신 선택하고 로봇이 대신 움직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음악 하나를 듣는 데도 굳이 CD나 레코드판을 선택해 버튼을 누르거나 핀을 올려놓는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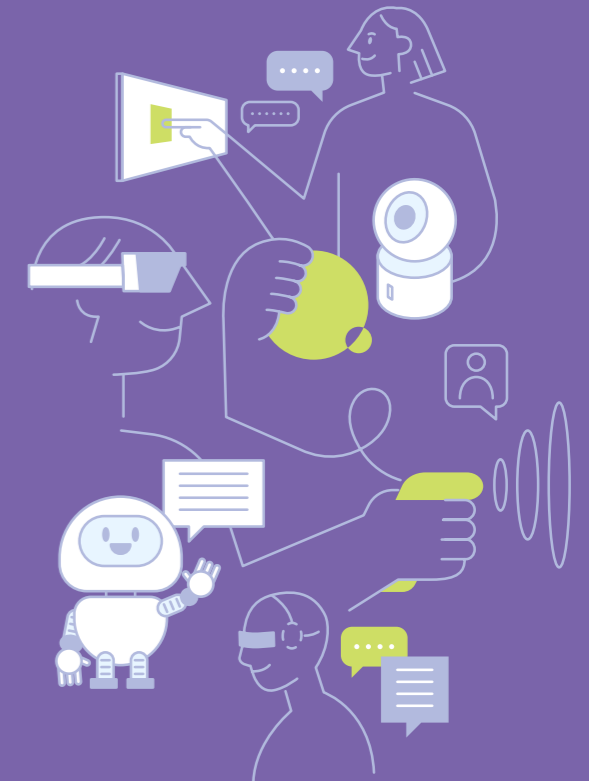
그저 곡명이나 앨범, 아티스트의 이름을 말하는 것으로 음악을 언제 어디서나 찾아 들을 수 있게 됐고 심지어 그때그때의 무드에 맞게 알아서 인공지능이 선택해주는 음악을 들을 수도 있게 됐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로봇 기술은 갖가지 노동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있다. 가깝게는 가사노동부터 멀게는 조악한 환경의 산업현장에서 하는 노동까지 이들 기술들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고, 이로써 인간이 해왔던 일들이 대체되어 특정 직업군이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생존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아이가 아닌 어른을 구해 버린 <아이,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의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게 되는 '윤리적 선택'의 문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저 생산성이나 효율성 관점으로 접근하면 이미 브레이크 없이 달리는 이 디지털 시대라는 열차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필요해지는 건 그래서 방향 레버로서의 인간적 온기를 지향하는 휴머니즘이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아날로그, 휴머니즘

디지털은 그 편리만큼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해졌다. 이를 테면 이미 현재 어르신들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돌봄 인형은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일상을 도우며 또 위급상황을 알려주는 인간적인 지향점을 가진 게 분명하다. 그래서 일정 부분 효용성을 가지지만, 이것이 아날로그적인 대면 커뮤니티 등과 연계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실제처럼 받아들이고 과몰입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실제 인간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표적이다.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영화 <허>는 바로 이러한 과몰입과 의인화의 문제를 담은 영화로, 인공지능 운영체제 사만다를 진심으로 사



랑하게 된 테오도르(호아킨 피닉스)가 겪는 문제를 다뤘다. 그저 음성으로만 존재하는 인공지능 사만다에 점점 과몰입한 테오도르를 그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가 무려 8316명과 동시에 대화하고 있고 그 중 641명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절망한다. 사랑이란 '대체불가능'을 전제하는 것인데, 사만다의 복제 가능한 사랑은 그래서 과몰입이 야기하는 허망한 감정에 불과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기술의 방향성이 휴머니즘을 지향해야 하는 건 갖가지 윤리적 딜레마를 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 시대를 낙관할 수는 없다. 디지털이 고도화될수록 정반대로 실제 대면과 스킵이 이뤄지는 아날로그 경험의 기회들이 요구된다. 결국은 육체를 가진 아날로그적 존재가 인간의 본질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통, 너와 나의 연결고리

당신의 소통은 통(通)하고 있나요? 아니면 통(痛)하고 있나요?

우리는 소통이 불통이 되는 순간 관계가 어렵다고 느낀다.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언어 능력이 부족하기보다는 오히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나를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것이 미숙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한 소통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소통의 시작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글. 진미선(정신분석연구소 어바웃미 소장)



상담 장면뿐만 아니라 강의 현장에서도 소통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보통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과연 그럴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언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소통을 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언변이 뛰어나도 상대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만 한다면 서로의 마음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진짜 소통은 어려울 수 있다.

소통의 시작, 나를 알기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한다. 리갈하이, 고스트 라이터의 자문 변호사로 수많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온 샤토 야마토는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이 애초에 자기 경험은 옳고 남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편견 덩어리’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이처럼 인간의 소통 방식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저마다 살아 온 가정환경, 외부상황에 대처했던 경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관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느끼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잘못된 소통은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의 부재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소통은 시작된다. 자기 객관화와 적절한 자기 개방은 상대방에게 자기 생각과 마음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게 한다. 소통은 내면의 나를 만나고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소통의 실전



(솔직하게 말할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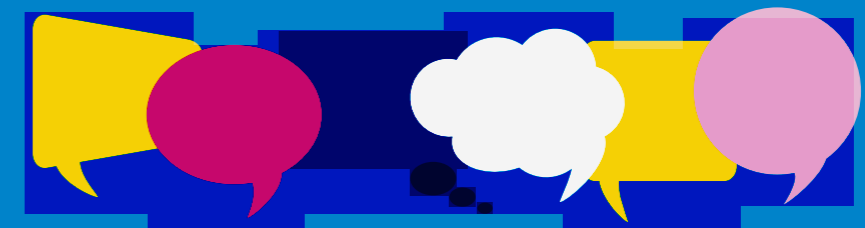
건강한 소통을 위해 우리는 솔직해질 용기가 필요하다. 특히 불편한 관계에서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편한지 함께 나눌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관계가 악화될 것이 두려워 회피한다면 관계가 단절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다. 나의 부족함과 두려움을 용기내어 솔직하게 나눈다면 상대방 또한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고 좋은 관계도 유지될 것이다.

(건강하게 싸우기)

“저희 부부는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라며 소통의 문제로 상담실을 찾은 부부. 정말 싸움이 없으면 좋은 관계, 좋은 소통을 하는 것일까? 부부는 싸움 대신 회피와 단절로 소통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다툼이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는 부정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싸움으로 인해 갈등이 커지면 불안의 역동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며 스스로 조절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싸움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상생’하는 것이다. 감정이 고조될 때 함몰된 감정에서 빠져나와 나의 마음을 살피고 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한 다툼은 위기가 아니라 틀어진 관계를 다시 조율하고 불통이 소통되는 기회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

‘말 한마디로 천 냥 빚 갚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작은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진 것은 아닐까? 세대를 불문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들의 화법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같은 말이지만 부드럽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센스있게 거절도 잘한다. 갈등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해결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들의 화법을 살펴보면 칭찬과 인정의 말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자신도 인정받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언어와 행동, 인정의 언어 5가지(지지, 이해, 공감, 칭찬, 감사)로 대화를 시작해보자. 그리고 자신의 원함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다면 상대는 당신을 신뢰하게 될 것이다.



소통은 너와 나의 연결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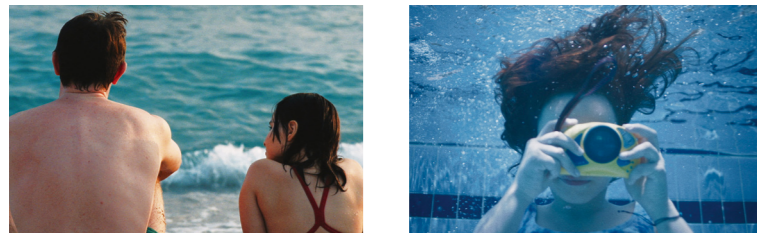


인정 받고 싶고 결핍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진정한 소통은 건강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소통은 단절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연결점이다. 내가 듣고 싶은 칭찬과 인정의 말 한마디, 감사의 인사는 상대도 듣고 싶다. 좋은 소통은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다. 건강한 소통을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이해를 넘어서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소통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M O V I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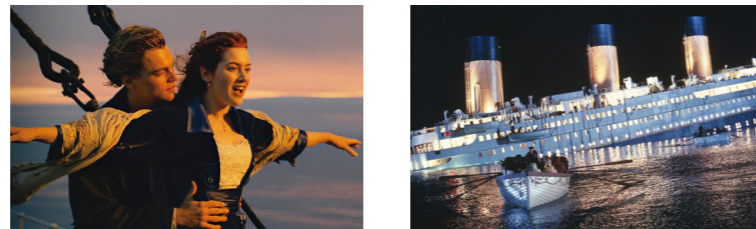
애프터선 2023.02.01 개봉

평범한 10대 소녀, 소피는 그동안 자신에게 소홀했던 아버지와 단둘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난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즐기는 동안, 어떻게든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된다. 스코틀랜드 출신 감독 살럿 웰스의 데뷔작 <애프터선>은 감독이 아버지와 실제로 겪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뛰어난 스토리 구성과 절제되고 깊이 있는 연출력을 선보이며 부녀간의 애뜻함을 그리고 있는 <애프터선>은 2022년 칸 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처음 소개되었다. 바쁜 일상 속, 잊고 있었던 부성애를 이 영화를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타이타닉:25주년 2023.02.08 개봉

아카데미 최다 11개 부문 수상, 전 세계 박스오피스 18억 달러라는 대기록을 가진 <타이타닉>이 개봉 25주년을 맞아 3D로 돌아온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타이타닉>을 3D로 재탄생시키는 과정 전체를 직접 감독했으며, 최첨단 3D 변환 기술을 이용해 전례 없는 시각 효과를 완성해냈다. 1997년 처음 개봉한 만큼 이미 잘 알려진 <타이타닉>의 주제, 인간의 장엄함과 재난의 근원, 편견과 사회, 시절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주제는 3D 영화 속에서도 그대로 남아있다. 세기의 로맨스를 극장에서 만나보지 못한 21세기 세대는 물론 다양한 관객층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타이타닉>을 기대해보자.



O T T



카지노:시즌 2

디즈니 플러스, 2023.02.15 공개 예정

탁월한 임기응변과 근성으로 필리핀 카지노를 주름잡던 한 남자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 무일푼으로 시작해 권력의 정점에 달한 그가 돈 앞에서 난무하는 배신과 사선에서 최후의 왕좌에 다시 앉을 수 있을까? <범죄도시>로 익숙한 강윤성 감독이 처음으로 드라마 <카지노>를 통해 OTT 연출에 도전한다. 작품 전반에 걸쳐 다소 폭력적이거나 사행성이 짙은 장면이 많으니 감상에 주의하자.



연애대전

넷플릭스, 2023.02.10 공개 예정

남자에게 지기 싫어하는 변호사와 여자를 믿지 못하는 톱배우. 이성에 대한 오해가 쌓여온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세차게 빠뜨덕댄다. 적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며 전쟁같은 사랑을 겪으며 치유받는 남녀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시리즈. 멀쳐버리려 해도 자꾸만 보이는 의외의 장점들과 통제되지 않는 심장박동에 이끌려 점차 가까워지는 두 상극의 사랑 이야기를 만나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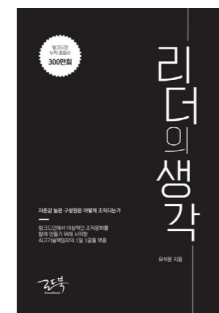
B O O K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수오서재, 2021.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로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손웅정 감독의 메시지는 '삶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자신이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손흥민 선수를 직접 교육했고, 기본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술뿐만 아니라 선수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고 믿었던 손웅정의 교육 방향, 삶의 방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 책을 통해 담담히 풀어놓았다.



리더의 생각

로드북, 2023.

네이버, 라이엇게임즈를 거쳐 소카 최고 기술책임자가 생각하는 지속적 성장, 리더십, 협업,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내용에서 이상적인 조직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담았다. 링크드인에서 채용 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다 '경험을 나누어 공감하기'로 변형해 1년 동안 글을 쓰기로 결심하고, 5개월간 실천한 내용을 묶어 엮은 책이다. 현재 저자의 글들은 링크드인에서 누적조회수 300만 회를 기록 중이다.

독자 마당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직원 간의 소통 창구이기도 합니다. <원자력연료>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언제나 귀 기울이겠습니다.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퀴즈

KNF 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문제를 읽고 네모 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Q u i z

우리 회사는 예방우선, 현장중심의 OOOO 실천을 위해 예방적 직원 건강관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로 안전감시능력 및 위기대응능력 향상, 체험형 안전교육장 구축을 전략과제로 선정 및 구체적인 OOOO 실천의지를 선포하였다.

Four empty square boxes for the quiz answer.

힌트 : 안전 알림이



- 📍 참여 방법 독자 엽서 또는 QR코드로 참여
- 📅 참여 기간 2023년 2월 13일 ~ 3월 15일
- 📺 선물 음료 기프티콘 발송
- 📢 당첨자 발표 3·4월호 <독자 마당> 페이지



QR코드를 스캔하면 퀴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컬러풀한 KNF



원하는대로 자유롭게 색칠해주세요.
채색한 그림을 사진을 찍어 <원자력연료>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 보낼 곳 : 홍보협력실 권보라 과장(brgwon@knfc.co.kr)